‘효당’, 한국근대지성사의 귀중한 자료

효당 최범술

효당 최범술 문집

김상현 엮음 | 나라연출판 제작 | 비매품

“보통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생후 닷새 된 갓난아이라 죽었을 것인데 오히려 기는 시늉을 하였을 정도로 범이나 수리처럼 강인한 체질이라 하여 아명을 범술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효당 최범술(曉堂 崔凡述 · 1904~1979) 스님. 그 이름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여러 대목에서 뚜렷하고 중요한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제자로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 나선 독립운동가로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한 교육자와 정치가로서, 차문화를 넓힌 다인으로서. 책은 그가 남긴 문장들을 모은 문집이다.

故 김상현 교수

김상현 교수를 대신해 문집을 발간한 박태원 교수

그 문장들을 모은 이는 올해 7월 21일 별세한 김상현 동국대 교수다. 그는 효당 스님의 제자다. 한국불교사와 한국불교사상사 탐구에 쏟은 그의 정성과 열정에 스승의 삶이 관여했음은 의심할 수 없음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넓히고 힘껏 달리게 해준 스승을 기리고 싶었다. 효당의 삶이 지니는 각별한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기에, 김상현은 효당의 유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동시에 스승의 궤적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효당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자신의 한 과업으로 여겼다. 역사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고, 전법이 될 수 있는, 스승의 소중한 글들을 찾아내고 정리해 오던 그가 느닷없이 세연을 접었다. 그렇게 효당의 제자 김상현은 스승의 문집을 엮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책은 故 김상현 교수의 매부인 박태원 울산대학교 교수가 마무리했다. 처남이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박태원 교수가 문집을 완성한 것이다.

김상현 교수를 대신해 문집을 완성한 박태원 교수는 서문에서 “김상현 선생이 준비해왔던 〈효당문집〉을 고인의 영전에 올리는 것이 급하게나마 그를 기리는 일의 하나일 수 있다고 여겼다. 마침 49재 가운데 제3재를 그의 정신적 고향인 다솔사에서 모시기로 했기에, 다솔사 재에서 바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원고를 책으로 엮었다. 정식 출판을 하려면 수록된 글들의 저자나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우선 비매품으로 만들어 그의 영전에 바친다.”며 발간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

효당 최범술은 1904년 경남 사천군 곤양면에서 태어났다. 4남3녀의 넷째아들로 태어난 그는 1910년 고향의 사립학교인 개진학교에 입학했으나, 재학

효당(오른쪽 두번째)과 김상현(왼쪽 세번째)

효당이 남긴 문헌 모은 ‘문집’
제자 故 김상현 교수가 모으고
매부 박태원 교수가 발간
고인 다솔사 3재 때 헌정

중 일본인 교사 배척과 동맹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한 후 곤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고향의 다솔사와의 인연으로 14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왕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옥고를 치렀으며, 1931년 만해 스님이 불교계의 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다시 옥고를 치렀다. 1933년 도쿄의 다이쇼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에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명성여자학교를 설립했다. 1942년 김법린 등과 해인사, 다솔사 등에서 한글을 가르치다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1947년 해인사 주지로 살았고, 1948년 제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의 다도〉등의 저서를 남겼다.

효당은 특별한 시대를 특별한 행보로 헤쳐나간 거인이다. 한국인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문명 차원의 전환 시대에 효당은 몸담고 있었다. 효당이 질주한 시대는 이러한 비상한 조건들로써 직조되어 있었고, 이 조건들은 민족사나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이었다.

효당과 다솔사에 수렴되고, 또 그로부터 발산해 간 시절 인연들은, 그 세월만큼이나 특별하다. 책은 그 격동의 전환시대에서 민족의 활로를 모색하고 인류의 희망을 예비하고자 했던 전통진영 진보지성들의 절절한 고민과 분투가 응축되어 있다. ‘효당’과 효당이 남긴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불교, 한국학, 문화, 예술, 정치, 교육 등 전방위로 펼쳐진 효당의 행보와 성취가 한국 근대지성사 탐구의 중대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책은 제1장 ‘청춘은 아름다워라’, 제2장 ‘독립운동과 정치활동’, 제3장 ‘불교에 관한 논설’, 제4장 ‘차와 문화’, 제5장 ‘만해선생을 기리며’, 제6장 ‘불교 관련 논문’, 제7장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총 일곱 개의 장과 부록1 ‘효당 스님에 관한 글모음’, 부록2 ‘효당 강의필록’, 부록3 ‘효당 스님 연보’, 부록4 ‘사진자료 모음’ 등 네 개의 부록으로 엮어졌다. 제1장 ‘청춘은 아름다워라’는 1975년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것으로, 효당 자신이 정리한 인생회고록이며, 제7장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1983년 동국출판사가 발행한 단행본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반야심경〉 260자, 한 자, 한 자 살펴 보기

주시자, 관자재보살로 사는 법

동암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천원

한자로 제목은 10자, 본문은 260자.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은 불자들이 법회 또는 행사에서 늘 독송하는 불교 경전이다. 그러나 그토록 독송하고, 외우고 사경하는 반야심경이지만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독송하고 사경하는 예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책은 〈반야심경〉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했으며 이해 체득한 사람은 무엇을 얻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한 무엇에 대한 기록물인가? 등등 반야심경의 이해를 이끌어 주는 책이다. 저자 동암 스님(동해 명상사 주지)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접근한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과 휴정 스님의 ‘해탈열반시’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 두 글을 비교해가며 읽어 볼 수 있다.

책이 설명하는 반야심경과 서산대사의 ‘해탈열반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저자가 설명하는 반야심경 본문 260자의 내용은 사라자라는 제자를 대상으로 설법을 하지만 오직 개인 내면, 마음과 그 마음을 ‘보는 자’ 그리고 보는 대상에 대한 법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관자재보살’이란 주시자, 응시자, 지켜보는 자, 관찰자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보는 깨달은 보살이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무아인중수자(無我人衆壽者: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즉 무아에 통달한 사람, 사상(四相)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주시자가 된 자’를 여래는 참다운 보살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이 몸과 생각을 지켜보는 ‘주시자’임을 깨닫게 되면 온갖 두려움과 공포, 고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허상임을 알게 된다.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시기와 질투, 남들과의 비교 등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허상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는 서산대사가 〈산가귀감〉에서 남긴 ‘해탈열반시’란 게송처럼 마음의 모든 고통과 재앙을 벗어나 고요하고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순간이란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저자는 반야심경과 해탈열반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이 법문을 이정표로 살아간다면 현세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에고(ego)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며, 아욕다라삼막삼보리를 깨닫는 수행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독자들이 고통과 두려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빚어진 모든 고통과 나아가 생사(生死)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책에 들어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4 ~ 8/2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7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8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9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성운대사	운주사
10	티베트불교 수행의 설계도	사이토 타모츠	하늘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티베트로 불교를 ‘가져온’ 마르빠의 전기

밀라레빠의 스승, 마르빠

장 옌 헤루까 지음 | 날란다역경위원회 영역
양미성, 양승규 옮김 | 탐구사 펴냄 | 1만8천원

티베트불교 까규파의 시조인 역경사 마르빠(1012-1097)의 전기이다. 마르빠는 후기 인도불교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인도를 세 번이나 찾았다. 나로빠, 마이뜨리빠 등의 제자가 되어 20여 년간 인도에 머무르며 많은 가르침을 배워와 티베트에서 실천수행 계보인 까규파를 열었다. 그의 수제자는 히말라야의 요기로 알려진 밀라레빠이며, 이 책의 저자도 말라레빠의 계보에 속하는 15~16세기 티베트의 유명한 스승인 짱 옌 헤루까이다.

마르빠의 생애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고대 티베트인들이 인도에서 티베트로 불법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알려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마르빠는 단순히 산스크리트어를 티베트어로 옮긴 역경사가 아니라, 실제로 불교를 티베트로 ‘가져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자이고 수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농부이자 재가자로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의 일대기에는 역경(譯經)과 수행을 어떻게 한데 결부시킬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까규파, 겔룩파, 사꺄파, 닝마파의 4대 종파로 이루어진 티베트불교 안에서도 까규파는 실천수행을 가장 중시하는 종파로 알려져 있다. 이 종파는 밀교가 전성기에 이른 후기 인도불교의 거장 틸로빠, 나로빠 등의 계보를 이은 티베트의 역경사 마르빠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마르빠의 수제자 밀라레빠의 전기(〈히말라야의 요기 밀라레빠〉)와 그의 깨달음 노래를 모은 〈밀라레빠 십만송〉이 번역 출간되었으나, 스승인 마르빠의 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미국에서 나온 책은 영역본 〈역경사 마르빠의 생애〉를 옮긴 것인데, 마르빠의 계보와 까규파의 수행 전통 등을 해설한 머리말과 자세한 용어해설이 함께 들어 있어 티베트불교에 생소한 일반 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베트불교는 동아시아 대승불교 전통에 생소한 많은 전문용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행 체계도 상대적으로 복잡다단한 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전기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티베트불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결 수월할 것이다. 책은 마르빠가 많은 어려움을 무릅 쓰고 인도를 찾아 당대 인도불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나로빠, 마이뜨리빠 등 스승들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는 과정과, 그 가르침과 경전들을 가져와 티베트에서 법을 펴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 전기는 무엇보다도 마르빠가 스승들에게 헌신하는 자세와,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많은 노래로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 등을 그의 인간적 면모와 함께 놀랍도록 생생하게 드러낸다. 11세기의 인물 마르빠를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듯이 보여주는 15~16세기 저자의 안목과 필체가 인상적이다. 마르빠 이후 까규파는 그의 스승 나로빠가 예언한대로 더욱 발전해 갔고, 4개의 큰 지파와 8개의 작은 지파로 세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책은 까규파의 시조 마르빠에 대한 유일한 정본 전기이며, 책 중에 등장하는 노래들 중에는 수행법에 관한 나로빠와 마이뜨리빠의 중요한 지침들이 들어있다. 티베트불교에 대해 일반적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교양서이고, 수행자나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마르빠와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대한 필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바른법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 · 英 · 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계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 · 英 · 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단청 / 탱화 / 개금 / 조각 / 보수
문화재수리 기능자 제 2632호
장 병 택
단청탱화 등 불사에 혼을 바친 31년 단아한 화공 장병택 명인
세상에는 세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 시켜야만 하는 사람,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화공 장병택 명인은 자신의 취향을 불사의 일에 쏟아 붓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것이 녹아 흐른다.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을 배우며 커가면서 익히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 어려서는 부모을 의지하고 젊어서는 자신의 주관과 신념에 따르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연의 섭리에 의존한다. 자신이 넘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장엄한 큰 힘에 기대고 싶어하며 소망하는 바램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흔적은 생활 구석구석에 묻어있고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면의 세계를 암시하듯 자신만의 독특한 표시나 기호 등을 문자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냈으며 이것이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생활의 수단이나 상징으로 이어져 왔다.
단청은 이러한 암시적인 표현과 상징적 요소를 문양으로 나타냄으로서 우리 내면의 염원과 다가올 미래의 영생의 세계를 꿈꾸며 가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무언의 장식이다.
화실 : 전북 정읍시 상동 253-8 현대 2차APT 103동 303호
전화 : 063)532-7062 휴대폰 : 011-676-7062 / 010-6380-7062